

투데이 칼럼

총선 초박빙 선거구

4·10 총선 주요 격전지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초박빙 지역의 결과에 따라 총선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관측이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 벨트'는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을 따라 늘어난 7개 자치구(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가 관건이다.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권의 '반도체 벨트', '서울 편입권'에 이르기까지 막판까지 관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동작을은 4선 경력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경찰 출신의 정치 신인 민주당 류상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성남 분당갑·을도 박빙이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안철수 후보와 강원도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분당을은 대통령령 출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병욱 후보가 맞붙었다.

'교수 대 교수' 대결이 벌어진 수원 원정에서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2%p차 박빙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분구·신설된 평택병은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곳은 기존 평택을의 3선 현역 의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론

특보 출신인 김현정 후보의 경쟁으로도 주목도가 높다. 포천·가평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두터운 편이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에서 기존 현역 의원 대신 신인이 출격하면서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강동태 후보와 민주당 박윤국 후보가 2.2%p 차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예년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을 이룬 새로운미래에서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구에 출마하면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의 대결 구도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여당의 '호남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표심을 보인 충청에서도 여러 지역이 혼전 중이다. 세 번째 리턴매치 지역

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붙었다. 현역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불출마한 홍성·예산에선 대통령령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와 충남도지사를 지낸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접전 중이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연승을 거둔 충북 청주청원과 청주서원은 각각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와 민주당 송재봉 후보,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와 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박빙 양상이다.

강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국민의힘 김해란 후보와 민주당 허영 후보가, 원주갑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와 민주당 원창목 후보가 접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PK)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를 따라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는 양당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된 부산 남구는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접전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2%p가량 앞섰던 해운대갑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와 민주당 홍순현 후보가 접전 상태다.

부산 북들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붙었다.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와 민주당 변성완 후보가 접전이다.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도 민심이 요동치며 예측불허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총선 영남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읍의 경우 전직 경남지사 물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갑도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와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초박빙 양상이다. 두 현역 의원이 맞붙는 김해읍은 지역구를 옮긴 도전자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와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맞붙었다.

'3자 대결'이 이뤄진 경남 창원성산은 국민의힘 강기운 후보와 민주당 허성무 후보,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접전 중이다.

사설

국제PEN 장교철 전북 회장 취임

국제PEN한국본부 전북지역 위원회를 3년 간 이끌어갈 제7대 장교철 회장이 취임했다. 국제PEN한국본부 전북지역위원회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제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새 임원진으로는 부회장 이두현, 문금옥, 김명자, 한정순, 사무국장 육인정, 편집위원장 김미림, 운영위원장 이동환, 기획위원장 이광원, 국제교류위원장 양해원,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아, 국제통·번역위원장 정향식, 감사 김추리, 이해속 씨가 임명됐다.

장교철 회장은 "국제 교류의 이념이 담겨 있는 단체를 더욱 진실하게 꾸러가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외국 문학단체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PEN은 신규 사업으로 11월에 베트남 동나이성 문인단체와 상호 교류 행사를 준비

중이다. 국제PEN은 1921년 영국의 여류소설가인 도슨 스코트(Cathaine Amy Dawson Scott, 1865~1934) 여사의 제창의 해 창립됐다.

영국 런던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14개국 17개 세계적으로 작가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PEN(PEN)이라는 이름은 본래 시인(Poets), 수필가(Essayists), 소설가(Novelist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현재는 장르 구분 없이 번역작가, 언론인이나 역사가 등 작가 일반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본부는 1954년에 창립, 전북지역위원회는 2001년에 창립돼 현재 회원 2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PEN은 해마다 '작촌문학상'과 '고천예술상'을 시상하며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와 회원 창작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기 바란

어느 축제제전위원회 파행 운영

전북 도내 어느 지자체가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 제전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제전위원회 정관을 지키지 않은 채 총회가 열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一派萬派)로 번지고 있다.

해당 제전위원회는 당초 지난 2월 21일 제전위원 908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1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도 예정됐다.

그러나 제전위원 성원이 안 되어 총회를 열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임 위원장은 총회를 열었다. 정관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제전위원회 정기 총회는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전위원 908명 가운데 과반수인 454명이

상이 참석해야만 총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 참여한 위원은 고작 218명이었다. 그런데도 전임 위원장은 성원을 선언했다. 독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이어 주요 안건인 2024년 제전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계획(안), 2024년 제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024년 1월 24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등이 다시 선출되었다고 선포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임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19개 읍면동 제전위원회 대의원 회의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스스로 밝혔다. 현재 전임 위원장은 제전위원회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전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위법 행위를 방조 및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조속한 수습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신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잉주 "이번 방중은 평화 여정"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1일(현지시간) 대만 북부 타이베이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마 전 총통은 이번 방중을 일장 원화를 위한 '평화 여정'이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법 제정하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의회 앞에서 시위대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을 맞아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재를 알리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Large graphic with a sailboat on waves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Below it,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